
스피노자의 개체론과 자유 문제* **

이혁주 (인하대학교, 초빙교수)

< 목 차 >

- I. 서론
- II. 스피노자의 개체론
 - 1. 개체의 개체성과 관계적 본성
 - 2. 개체의 인과 역량
 - 3. 개체의 변용 역량과 실재성
 - 4. 부분이자 전체로서의 개체
- III. 스피노자의 자유 문제
 - 1. 내적 규정으로서의 자유
 - 2. 내적 규정의 가능조건으로서의 외적 규정
 - 3. 내적 규정과 진정한 자유
 - 4. 진정한 자유의 가능 조건
- IV. 결론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B5A07920958).

** 스피노자의 저작 중 『윤리학』은 E, 『지성교정론』은 TIE, 『신학정치론』은 TIP, 『소론』은 KV, 『서간집』은 Ep로 약칭하고, 서문은 praef, 정의는 d, 공리는 a, 정리는 p, 증명은 d, 해명은 exp, 따름정리는 c, 주석은 s, 「자연학 소론」이라 불리는 『윤리학』 2부 정리13의 주석과 14사이의 텍스트에 등장하는 정의는 D, 보조정리는 L, 보조정리3 앞에 등장하는 공리는 A' 이후에 등장하는 공리는 A", 요청은 Post로 표기하였다. (E2p13sL2→『윤리학』 2부 정리13의 주석 보조정리2) 겐하르트트의 비평본 전집은 G로, 켈리의 표준 영역본은 C로, 국역본은 역자 이름으로 약칭하고 권수는 로마자로 쪽수는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하였다. (G II/14→ 겐하르트판 2권 14쪽, C I/17→ 켈리역 I권 17쪽) 데카르트의 저작 중 『철학원리』는 PP, 아당·타네리의 전집은 AT로 영미권 선집은 CSM으로 국역본은 역자 이름으로 약칭하고 권수와 쪽수는 각각 로마자와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하였다. 아울러 본문의 인용문에서 강조된 부분은 저자의 것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모두 인용자의 것임을 밝힌다.

국문초록

스피노자는 자유를 내적 규정 상태로 정의하고 제약은 외적 규정 상태로 정의한다. 오직 신만이 이러한 의미의 자유를 갖고 있으며, 인간을 포함한 모든 유한한 개체는 외적 규정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자유를 결여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스피노자는 인간이 내적으로 규정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안내한다. 우리는 유한한 개체의 자유에 대한 스피노자의 견해가 그의 개체론을 통해 일관되게 해명될 수 있다고 본다. 스피노자가 유한한 개체의 자유를 부정한 이유는 그것들이 근본적으로 관계적이며 따라서 외적 규정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유한한 개체의 내적 규정으로서의 자유를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유한한 개체의 실존과 작업의 근본 조건인 외적 규정의 경우 내적 규정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 규정이 가능하기 위한 상수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한한 개체의 내적 규정은 단지 원할만한 자유의 필요조건일 뿐 스피노자가 말하는 진정한 자유는 아니다.

주제어: 스피노자, 자유, 제약, 결정론, 개체, 관계

I. 서론

일찍이 올덴부르크는 스피노자에게 보낸 한 편지에서 “선생님께서서는 만물과 그 작용을 숙명적 필연성(*fatalis necessitas*)에 종속시키는 듯” 하다고 지적하고, 그렇다면 “강제적이거나 필연성을 포함하는 것은 모두 용서 가능한 것” 아닌지, 어떻게 “잘못과 벌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지 질문한다. 필연성과 자유/책임 문제의 양립은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Ep74, 이근세 384~5) 스피노자의 답변은 만물이 신의 본성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따라 나왔다 할지라도 도덕규범은 구원에 이롭고 욕망할만한 것이며 악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었다. 스피노자가 올덴부르크의 주장을 “습관적으로 제기되는 [...] 논변”(Ep75, 이근세 388) 중 하나라고 했을 때, 어쩌면 그는 자신의 철학에 ‘무조건적 필연론자’(categorical necessitarian)이자 ‘자유 의지 회의론자’(free will skeptic)

라는 꼬리표가 계속 따라 다닐 것임을 예견했을지도 모르겠다.¹

사실 스피노자의 철학이 과연 필연론(necessitarianism)에 속하는지, 만일 그렇다면 또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는 결정하기 쉽지 않은 문제이다.² 필연론과 관련하여 자유 문제를 논하기 어려운 이유다. 그러나 모든 유한한 실재는 다른 것에 의해 규정된다는, 논란의 여지 없는 그의 결정론(determinism)과 관련하여 자유를 논한다 해도 자유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로 남는다.³ 추후 살펴볼겠지만 스피노자는 내적 규정을 자유로 정의하고 외적 규정은 제약된 것으로 정의하기 때문이다. 슬레이·차펠·로카에 의하면 스피노자가 자유를 부정하기 위해 이 세계가 유일한 가능세계라는 필연주의에 호소할 필요는 없었던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⁴ 실제로 스피노자는 ‘자유에 대한 가상’(falsa

1. 이లే테면 오코너에게서 이러한 평가를 볼 수 있다. T. O'Connor, "Free Will,"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Stanford Univ. Press, Tue Aug 21, 2018.

2. 스피노자의 필연론에 대해 켈리·왈스키는 ‘완화된’(moderate) 필연론이라고 해석하고, 이들의 논문이 수록된 논문집의 편집자 호이네만은 다른 참고서에서 스피노자의 철학은 ‘엄격한’(strict) 필연론이라고 역설한다. 국내에서는 조현진의 논문이 관련 문제를 다루고 있다. 나아가 스피노자의 필연성이 대물적인지(de re) 대언적인지(de dicto)도 논의되었다. 베넷이나 켈리는 후자 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고, 메이슨은 “그[스피노자]의 주장은 한결같이 그리고 가차 없이 데 레에 관한 것”이라고 역설한다. 아래 코이스티넨과 뉴랜드의 글에는 관련 쟁점이 잘 정리되어 있다. E. Curley & G. Walski, "Spinoza's Necessitarianism Reconsidered," R. J. Gennaro & C. Huenemann (eds.), *New Essays on the Rationalists*, Oxford Univ. Press, 1999; C. Huenemann, "But Why Was Spinoza a Necessitarian?," M. Della Rocca (ed.), *The Oxford handbook of Spinoza*, Oxford Univ. Press, 2018; 조현진, 「우연성의 뿌리-스피노자의 양상개념을 둘러싼 쟁점들에 대한 고찰」, 『근대철학』 6호, 2011, 71~98쪽; J. Bennett, *A Study of Spinoza's Ethics*, Hackett, 1984, pp. 111~124; E. Curley, *Spinoza's Metaphysics: An Essay in Interpretation*, Harvard Univ. Press, 1969, pp. 88~9; Richard Mason, "Erratum-Spinoza on Modality," *The Philosophical Quarterly* 36(144), 1986, pp. 313~342; O. Koistinen, *On the Metaphysics of Spinoza's Ethics*, Univ. of Turku, 1991; S. Newlands, *Reconceiving Spinoza*, Oxford Univ. Press, 2018.

3. 이는 슬레이, 차펠, 로카가 스피노자의 자유 문제를 필연론이 아닌 결정론에 입각하여 논의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R. Sleight, V. Chapelle & M. Rocca, "Determinism and Human Freedom," D. Garber & M. Ayers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Seventeenth Century Philosophy*, vol. II., Cambridge Univ. Press, p. 1227. 멜라미드는 필연론을 거부하면서 결정론을 고수할 수도 있고(이 경우 각각 공히 결정론적이면서 상이한 가능세계를 인정할 수 있다) 결정론을 거부하면서 필연론을 주장할 수도 있다(이 경우 단 하나의 가능세계만 가능할 뿐이다)고 지적하면서, 스피노자의 『윤리학』에서 두 주장은 ‘직교’(orthogonal)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필연론을 지지하는 전거로 E1p16과 E1p16d을, 결정론을 지지하는 부분으로 E1a3, E1p27, E1p28을 제시한다. Y. Melamed, "The Causes of Our Belief in Free Will-Spinoza on Necessary, Innate, yet False Cognition," Y. Melamed(ed.), *Spinoza's Ethics: A Critical Guide*, Cambridge Univ. Press, 2017, 123쪽 각주 7번 참고.

4. 그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는 라이프니츠 주장과 대조적이다. 그의 철학에서는 자유가 필연주의와 양

libertatis species)(E5p10s)이 일관되게 원인에 대한 무지에 기인한다고 지적한다.(E1app, E2p35s, E3p2s, E4praef, Ep58 등) 필연론이 아니라 결정론과 관련해서도 자유 문제가 “습관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스피노자의 철학의 결정론적 도식과 자유론은 어떻게 양립가능한가? 이는 모순에 불과한 것인가?⁵ 본고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우리는 스피노자의 문제적 자유 개념이 스피노자가 쇄신한 개체론을 통해 해명될 수 있다고 본다. 개체의 관계적 본성, 개체의 인과 역량, 개체의 변용 역량과 실재성, 부분과 전체로서의 개체론 등에 대한 그의 자연학적 논의는 그의 자유 문제 이해의 토대가 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이를 위해 먼저 「자연학 소론」의 개체론을 중심으로 자유 문제와 관련된 지점들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스피노자의 자유 문제의 쟁점을 해명할 것이다. 본고는 개체론에 입각하여 자유 문제를 재고하는 시론적 성격의 논문으로, 스피노자가 제시한 ‘진정한 자유’(E4p73s)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다루지 않는다. 우리는 진정한 자유가 가능하기 위한 조건을 그의 개체론에 근거하여 다루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II. 스피노자의 개체론

1. 개체의 개체성과 관계적 본성

스피노자 철학에서 개체는 다수의 물체들로 구성된 ‘복합체’(compositum, E2p13sA2)⁶ 내지 ‘복합된/합성된 물체’(corpus compositū)(E2p13sA3)⁷로 규정된

⁵ 럽불가능하고 외적 규정과는 양립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Sleight&Chapelle&Rocca, 앞의 글, pp. 1256~1270; 윤선구, 「스피노자와 라이프니츠에 있어 가능성 개념과 자유」, 『철학』 제78집, 2004, 103~137쪽 참고.

⁶ 윤선구는 “자유에 관한 스피노자의 주장은 이중적 의미에서 모순적”이라고 주장한다. (1)신만이 자유 원인이라고 하면서 인간의 자유를 주장하고 (2)정념에 대한 예측이 필연적이라면서 수동적인 정서 없는 이성에 의한 활동을 주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윤선구, 앞의 글, 113~114쪽.) (1)이 모순이 아닌을 해명하는 것은 본고의 목적 중 하나로 추후 상술될 것이고 (2)는 본고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진태원, 「스피노자의 윤리학: 욕망의 힘, 이성의 역량」, 『동서인문』 9호, 2018(진태원 2018로 약칭)을 반론으로 제시할 수 있겠다.

다.⁶ 그러나 부분들의 단순한 집적이 개체일 수는 없다. 개체는 그것을 구성하는 물체들이 서로 의지하면서 “일정하게 규정된 어떤 관계”에 따라 각자의 운동을 서로 전달할 때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개체에 대한 스피노자의 정의는 바로 이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E2p13sDef) 요컨대 개체는 서로 ‘연합’하고 있는 다수의 물체들로 합성된 하나의 물체이며, 그것을 합성하고 있는 물체들의 연합에 의해 다른 개체들과 구별된다.⁷

개체 정의를 따를 때 개체의 개체성은 그것을 합성하고 있는 물체들의 일정한 관계에 의해 설명된다. “운동과 정지의 관계/비율(ratio)”이라 명명된(E2p13sL5) 이 관계는 주어진 것도 완성된 것도 아니다. 오히려 다른 개체들과의 관계를 통해 생성·유지·소멸되는 것이다. 따라서 개체의 생성은 물론, 개체성의 유지와 재생, 나아가 소멸까지도 다른 개체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설명될 수 있다.(E2p13sPost3~4, E3p4) 개체의 개체성은 다른 개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개체를 구성하는 물체들 간에 일정한 운동과 정지의 관계가 유지될 때 보전된다.(E2p13sL4~6) 따라서 스피노자 철학에서 개체의 구성과 활동은 그것을 합성하는 내부 실재들 간의 관계 및 외부 실재들과의 관계로부터 추상될 수 없다. 스피노자는 ‘보편적 인과성’(universal causality)(E1a3)⁸과 ‘인과적 합리성’

6. 그렇다면 「자연학 소론」에서 개체를 합성하는 것으로 제시된 ‘단순한 물체들’(corpora simplicissima)은 개체일 수 없다. 그것들은 복합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스피노자 철학에서 존재하는 것은 모두 개체성을 지닌 하나의 개체로 실존한다고 볼 수 있다.(E. Balibar, “Spinoza: from Individuality to Transindividuality,” *Mededelingen vanwege Het Spinozahuis*, 71, Eburon, 1997, p. 8 이하 Balibar 1997로 약칭; E. Balibar, 『스피노자와 정치』, 진태원 옮김, 이제이북스, 2005, 212쪽 참고. 이하 Balibar 2005로 약칭) 따라서 단순한 물체는 실존하지 않을 것이다. 「자연학 소론」의 서술상의 모호함(E2p13sA2와 E2p13sL7s 참고) 때문에 개체를 합성하는 물체가 복합체인 개체인지 원자적인 ‘단순한 물체들’인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스피노자의 여러 주장들과 그 관계를 고려해 볼 때 개체를 합성하는 물체들 또한 복합체인 개체라고 본다. 자세한 논의는 진태원, 『스피노자 철학에 대한 관계론적 해석』, 서울대 대학원 박사논문, 2005, 177~185쪽 참고(이하 진태원 2005로 약칭)

7. 이때 우리는 개체화된 개체를 말할 수 있다. 발리바르에 의하면 ‘개체화’(individuation)는 “개체들이 환경(이는 사실 다른 개체들로 이루어져 있다)으로부터 분리’되어 외면과 분리되는 내면을 지닌, 다시 말해서 ‘개체성’(individuality)을 지닌 개체가 되는 것을 뜻한다. 한편 ‘개성화’(individualisation)는 “모든 개체들이 유일하다는 것, 또는 ‘구분될 수 없는’ 개체 같은 것은 실존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Balibar 1997, 9쪽 각주 8번)

8. 이는 “절대적인 시작도 절대적인 끝도 없다”, “무로부터(ex nihilo) 나오거나 무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고대 유물론의 원리를 스피노자가 새롭게 정식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Lucretius, 『사물의

(causal rationalism)(E1a4, Ep72)에 대한 근본 신념 위에서 실제보다 관계를 앞세우는 이러한 개체론을 구축한다.

「자연학 소론」 말미의 인간에 관한 요청이 명시하는 것처럼 인간 신체 또한 “매우 많은 수의 (상이한 본성을 지닌) 개체들로 합성”된 하나의 개체이다.(E2p13sPost1) 정신 또한 예외가 아니다. 정신은 신체의 관념인데(E2p13), 신체는 많은 개체들로 합성되어 있으므로 평행론(E2p7)에 의거 정신도 “매우 많은 수의 관념들로 합성”되어 있다는 것이 따라 나온다.(E2p15d) 따라서 인간 또한 다른 모든 개체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개체들과의 관계 없이 생성도 존재도 불가능하다. 인간도 다른 개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을 합성하는 물체들의 대체·크기 변화·운동 변화 등 크고 작은 변화를 겪는다. “우리는 연속적 변화 속에서 살아간다”(nos in continua vivimus variatione).(E5p39s) 그럼에도 인간을 구성하는 개체들 간에 ‘역동적 평형’(즉 일정한 운동과 정지의 관계)이 유지될 때 인간의 개체성은 견집(堅執)되고 재생되는 것이다.

2. 개체의 인과 역량

스피노자에 의하면 개체는 ‘실존’하는 한 다른 실재들에 대해 ‘활동’(agere) 내지 ‘작업’(operare)하는 원인으로서는 역량을 지닌다.⁹ “원인 또는 양태” 같은 표현의 사용이나(E1p28d) 그 본성에서 어떤 결과가 따라 나오지 않는 실재는 실존하지 않는다는 정리(E1p36)는 실존과 작업이 상호 함축적임을 잘 보여준다. 신의 본성에서 무한하게 많은 실재들이 따라 나오는 것처럼(E1p16) 신의 본성을 일정하게 규정된 방식으로 표현하는 개체의 본성에서 어떤 결과가 따라 나오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것은 기하학적 실재의 본성에서 그 특성들이 따라 나오는 것으로 유비될 수 있다.(E1p17c2s) 개체가 신의 본질을 일정하게 규정된

본성에 관하여, 강대진 옮김, 아카넷, 2012, 제1권, 146~264행, 37~45쪽 참고)

9. ‘활동’과 ‘작업’ 개념에 상이한 내포를 부여하지 않는 발리바르와 달리, 마슈레는 전자를 내적 규정에 따른 자유로운 행위로 후자는 외적 규정에 따라 결과를 생산하는 행위로 이해한다.(P. Macherey, *Avec Spinoza: Etudes sur la doctrine et l'histoire du spinozisme*,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92, p. 69 이하) 이는 양태들의 본질과 실존 이해, 양태들의 자유 문제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마슈레의 견해 요약과 난점에 대해서는 진태원 2005, 369~373쪽 참고.

방식으로 표현하고(E1p25c) 신의 역량이 신의 본질 자체라면(E1p34) “주어진 그 본성으로부터 어떤 결과가 따라 나오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실존하지 않”겠기 때문이다.(E1p36d)

스피노자는 3부 정리6 코나투스 정리에서 1부 정리25의 따름정리와 정리34에 근거하여 개체의 이러한 인과 역량을 “자신의 실존을 제거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립”하는, 곧 “할 수 있는 한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한에서 (quantum potest, & in se est) 자신의 존재 안에서 존속하려고 노력”하는(conatur) 것으로 제시한다.(E3p6d)¹⁰ 개체의 이러한 노력(conatus)은 그것의 ‘**현행적 본질 자체**’에 다름 아니다.(E3p7) 스피노자 철학에서 개체에 대한 역학적 해석이 정지해 있는 물체를 다루는 정역학적인(static) 것일 수 없고 운동하는 물체를 다루는 동역학적인(dynamic) 것이어야 하는 이유다. 따라서 코나투스 정리의 증명이 1부 정리25와 정리34에 의거하여 시작되는 것은 빌야넨의 지적처럼 스피노자의 ‘동역학적 본질주의’¹¹를 토대로 “유한한 실재가 그 본질 덕택에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인과 역량의 중심”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¹² 스피노자는 이 정리들과 개체의 본성이 상반된 본성을 지닌 것과 양립할 수 없다는 주장(E3p4~5)을 토대로, 실존과 분리되지 않는 개체의 활동/작업이

10. 베넷이 코나투스 개념 관련하여 제기한 스피노자 주장의 정합성 문제, 목적론 도입 혐의 등은 영미권 코나투스 논쟁의 모판이 되었고 많은 생산적 논의가 촉발되는 계기가 되었다. 관련 논쟁에 대한 간단한 소개로는 S. Nadler, 『에티카를 읽는다』, 이혁주 옮김, 그린비, 2013, 329~332쪽이 있으며, 보다 자세하고 비판적인 논의로는 박기순,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개념과 목적론」, 『철학사상』 57집, 2015, 88~93쪽이 있다. 선행 연구에서 특기할 것은 3부 정리4와 5를 중심으로 3부 정리6을 해석하는 까리에로의 ‘관성이론적 독해’(inertial reading)에 대한 빌야넨의 비판이다. 그에 의하면 자신의 ‘기하학적 해석’은 목적론을 도입하지 않고도 개체의 본질에서 인과 역량을 도출할 수 있다. 그가 관성이론적 독해의 문제점으로 제시한 4가지 주장은 고스란히 자신의 해석의 강점이 되는데, 우리의 논의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V. Viljanen, *Spinoza's Geometry of Power*, Cambridge Univ. Press, 2011, pp. 105~125 참고.

11. 빌야넨은 실재가 그 본질로 인해 실존하거나 행위하는 역량을 부여받는다는 스피노자의 학설을 코나투스 학설의 뿌리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동역학적 본질주의’(dynamic essentialism)라고 부른다.(Viljanen, 앞의 책, p. 5, 98)

12. Viljanen, 앞의 책, p. 100. 그러나 1부 정리25와 정리34에 의해서만 코나투스 정리가 도출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1부의 정리들은 “유한한 실재들이 동역학적 원인자들(dynamic causers)”이라는 것만을 함축하고 있을 뿐, 유한한 실재들이 자기 파괴적으로 행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증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3부 정리4와 5는 바로 이 점을 보증한다.(위의 책)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논증했던 것이다.

개체가 단지 외부 사물의 충격을 다른 것에 전달하는 정지 상태의 수동적인 사물이 아니라면, 두 개체가 충돌할 경우 그 원인과 결과 모두에 이 개체의 개체성/인과 역량으로 설명되어야 할 어떤 인과적 흔적이 기입될 것이다.(E2p13sA2", E2E2p16c2) 스피노자가 목적인과 생기론을 거부하고 작용인에 입각하여 개체를 설명하고자 한 것은 분명하지만, 개체의 인과는 데카르트에 게서처럼 정역학적인 기계론적 우주관에 의해 설명될 수 없다.¹³ 빌야넨이 “수많은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관성이론적 독해(...)는 승인될 수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개체의 코나투스 “맹목적인”(즉 기계적으로 생각되는) 작용인 관념”을 통해 설명될 수 없다고 했던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¹⁴ 스피노자가 정지 상태의 물질은 그것보다 강한 외부 원인에 의해서가 아니라면 운동하지 않을 것이라며, “데카르트가 생각하는바 정지 상태의 물질 덩어리로서의 연장으로부터 (...) 이 물체들의 실존을 증명하는 것은 단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일축했던 것도 상기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Ep81, 이근세 411)¹⁵

『윤리학』 1부 정리28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 중 하나는 바로 이 점일 것이다. 개체의 ‘실존’과 ‘작업’이 서로를 함축하는 사태라면, 이 정리에서 독특한 실재(res singularis)로서의 개체들 간 인과는 인과 역량을 행사(작업/운동)하고 있는 개체들 간의 인과로 보아야 하겠기 때문이다. 따라서 1부 정리28은 이미 어떤 식으로든 실존/작업하는 개체의 바로 그 활동이 다른 개체에 의해 변화

13. 주지된 바와 같이 데카르트의 자연학은 정지 상태의 물체, 운동의 제1원인으로서의 신, 그리고 이른바 ‘데카르트의 역학 원리’라 불리는 자연의 세 가지 법칙과 충돌 규칙 등에 입각한다.(PP 2부 참고)

14. Viljanen, 앞의 책, p. 112.

15. 물론 이를 운동의 원인을 물체 내부에 두었던 고중세 운동 이론으로의 단순한 회귀로 보아서는 곤란하다. 스피노자의 인과 이론은 관성 원리와 갈릴레이 상대성이 보여주는 외재적 인과성을 전제하면서 자연의 내재적 인과역량을 재건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스피노자의 동역학적 인과 이론에 대해서는 진태원 2005 제3장(105~166) 또는 진태원, 「변용과 연관의 인과론-스피노자 인과이론에 대한 한 가지 해석」, 『해결연구』 27호, 2010 참고.(이하 진태원 2010으로 약칭) 스피노자 철학에서 물체의 내면이 기계론적 질서 내에서 구축될 수 있음을 논구한 김은주, 「외적 충격으로부터 어떻게 내면이 구축되는가?-데카르트의 물체 충돌 규칙과 스피노자의 변용(affectio) 개념」, 『철학사상』 제49권,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13도 참고.

된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물론 이 정리는 유한한 개체의 실존이 자기원 인적이지 않고 그러한 의미에서 그것의 작업 또한 근본적으로는 타자에 의존 한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유한한 개체들의 무한한 인과 연관망에서 일어나는 개체의 실존과 작업은 실존하고 작업하는 개체의 내재적 인과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서술될 수 없다. 이를테면 이 연관망 속에서 a가 b를 규정 한다는 것은 b의 실존과 c에 대한 작업 방식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지 그것이 a에 의해 가능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b의 실존과 c에 대한 작업은 a 없이 가능하지 않지만, 이 정리는 그것이 b의 실존과 작업에서 b의 인과 역량이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1부 정리28은 개체를 정지상태의 수동적인 물질 덩어리로 보고 정역학적으로 그 실재의 실존과 운동이 외력에 의해 가능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실존하고 작업하는 실재의 운동이 외력에 의해 변화되는 동역학적인 인과 연관의 방식을 기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¹⁶ 발리바르가 지적한 것처럼 1부 정리28이 묘사하는 개체들의 무한한 연관은 “독립적인 직선적 계열들의 추가나 원인과 결과의 계보(A는 B를 ‘원인 짓고’, B는 C를 ‘원인 짓고’, C는 …)가 아니라, 독특한 변조들의 무한한 연관망에 의해서만, 또는 변조하면서 동시에 변조되는 활동들의 동역학적 통일성에 의해서만 제대로 표현될 수 있다.(어떤 A의 작업(opération)에 대한 B의 변조 활동(action)은 어떤 C들의 활동에 의해 변조되며, C들은 어떤 D들의 활동에 의해 또한 변조되고…)”¹⁷ 요컨대 개체들의 무한한 인과 연관망에서 어떤 것의 결과가 아닌 절대적인 원인이기만 한 실재는 있을 수 없고 어떤 것의 결과이기만 한 실재도 있을 수 없다. 추후 살펴보겠지만 개체의 이러한 측면은 스피노자의 능동·수동 개념에서 정확히 반영된다. 모든 개체는 다른 것들에 작용하는 원인이면서 다른 것들의 작용을 겪는 결과

16. 그렇다면 이 정리에서 b의 실존과 c에 대한 작업이 a에 의해 변조된다고 할 때의 ‘실존’은 실존과 작업의 상호 함축을 고려할 때 a가 b를 ‘생성’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다른 것에 의해 생성되어 어떤 식으로든 고유의 코나투스(力)를 갖고 존재하고 있는 b의 존재 내지 존속 방식을 변조한다는 의미로 새길 수 있을 것이다.

17. Balibar 2005, p. 217. 이는 발리바르가 스피노자의 관점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모델”로 ‘변조’라는 기술 개념과 유사될 수 있는 시공동의 인과 모델을 제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위의 책, 각주 134번)

이다. “이 두 측면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¹⁸

3. 개체의 변용 역량과 실재성

스피노자 철학에서 이러한 개체의 인과 역량은 변용(affectio) 역량으로 이해될 수 있는 바, 이는 개체가 함축하고 있는 ‘실재성’(realitas)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다.¹⁹ “실재의 정의가 더 많은 실재성을 표현할수록, 곧 실재의 본질이 더 많은 실재성을 함축할수록 더 많은 특성들이 따라 나온다.”(E1p16d) 이를테면 인간은 다른 유한한 실재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실재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인간 신체는 외부 물체들을 매우 많은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으며, 이것들을 매우 많은 방식으로 배치할 수 있다.”(E2p13Post6, E5p40도 참고) 때 이른 죽음으로 본격적인 자연학 논고를 집필할 수 없었지만, 기존 저술에도 개체의 변용 역량의 자연학적 토대가 무엇인지 간취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다.

이를테면 스피노자는 “**상이한 본성을 지닌 다수의 개체들로** 합성된 다른 개체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 개체가 자신의 본성을 보존하면서도 다수의 다른 방식으로 변용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E2p13L7s)고 지적하는 바, 여기에서 개체의 변용 역량은 부분들의 수적 다수성과 본성의 다양성에 비례한다는 주장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스피노자는 그것을 부분들의 다양한 운동이나 다른 부분들과의 다양한 운동 전달 방식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 개체의 부분들 각자는 [상이한 본성을 지닌] **다수의 물체들로 합성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들 각자는 (보조정리7에 의해) 때로는 더 빠르게 때로는 더 느리게 운동할 수 있으며, 따라서 본성의 변화 없이도 다른 부분들에게 더 빠르게나 더 느리게 자신들의 운동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많은 부분들로 합성되어 있으나 부분들의 본성이 다양하지 않은 혹은 그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개체가 부분들의 수적 다수성과

18. Balibar 2005, p. 225.

19. 실재성과 완전성 개념에 대해서는 W. van Bunge, H. Krop, P. Steenbakkers & J. van de Ven, *Continuum Companion to Spinoza*, Continuum, 2011, pp. 286~287, 300~301 참고.(이하 van Bunge 2011로 약칭함)

본성의 다양성을 지닌 개체보다 낮은 변용 능력을 지니고 있을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²⁰

또한 스피노자가 개체를 서로 연합하고 있는 다수의 물체들로 합성된 하나의 물체로 정의하고 “다수의 개체들이 하나의 작용에 협력하여 그 개체 모두가 함께 하나의 결과에 대한 원인”이 되는 것을 ‘독특한 실재’로 정의한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E2d7) 여기에서 개체를 부분들의 기능적 복합체로 이해하고 다양한 개체 구획의 가능성과 개체의 기능적 복잡성을 사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체의 변용 능력은 그 복잡성과 비례할 터인데, 이 복잡성은 그것을 합성하는 부분들의 유기성 및 부분들의 중층적이고 중첩적인 복잡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 부분들의 유기성이 그것들 간의 상호적이고 상의적인 관계의 긴밀함을 뜻한다면, 부분의 중층적이고 중첩적 복잡성은 개체의 구조적 복잡성을 표현한다. 부분과 전체의 중층적(重層的, layered) 구조는 하나의 전체로서의 개체가 다양한 층위로 구분될 수 있는 부분/수준/단계들(levels)로 합성되어 있음을 뜻하고²¹ 부분과 전체의 중첩적(重疊的, overlapped) 구조는 개체를 합성하는 부분들이 중층적일 뿐만 아니라 그 특성과 기능에 따라 다양한 전체의 일부로 편입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²² 우리는 부분들의 유기적 관계가 상대적으

20. 스피노자의 텍스트에는 이를테면 「자연학 소론」 보조정리4에서처럼 동일한 본성을 지닌 다수의 실체가 실존한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것인데, 동일한 두 물체조차 ‘수적 구별’은 가능하겠기 때문이다. 물론 스피노자 철학에서 개체의 독특성을 고려할 때, 그 동일성은 두 개체들 사이의 ‘내재적’(intrinsic) 동일성이 아니라 유적 동일성에 가까울 것이다.(그것은 스피노자 철학에 ‘현행적 본질’ 개념 외에 ‘유적 본질’ 관념이 잔존하는 이유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내면성을 갖지 않은 ‘가장 단순한 물체들’조차 “운동과 정지, 빠름과 느림”에 의해 “서로 구별”될 수 있는 것처럼, 만일 두 개체가 내재적으로 동일하더라도 수적으로 구별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위치, 운동과 정지, 각각이 다른 개체들과 맺는 관계 등에 따라 얼마든지 구별될 수 있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관계가 존재에 우선한다면 개체의 이러한 특성은 외적 관계에 수반되는 유유성이 아니라 개체의 본질을 구성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1. 이를테면 인체는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system) 등 다양한 층위로 구분될 수 있는 부분들의 복합체로 규정될 수 있다. 보통 ‘계층(hierarchical) 구조’로 표현되나 이는 전체(상위의 것)에 대한 부분(하위의 것)의 종속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부분과 전체의 상호 효과 및 상의적 관계에 대한 스피노자적 관점을 표현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22. 임의의 개체를 부분으로 포함하는 개체는 단 하나가 아니라 여럿일 수 있다. 하나의 개체는 여러 개체의 일부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하나의 개체라고 규정될 수 있는 실체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의 범위를 훨씬 초과할 것이다.

로 느슨하고 부분들의 중층적이고 중첩적인 복잡성이 낮은 개체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개체 역시 부분들의 유기성 및 부분과 전체의 구조적 복잡성의 정도가 높은 개체보다 변용 능력이 낮을 것이다.

유의할 것은 개체의 인과 역량과 변용 역량이 단순히 원인됨 또는 '변용하기'(afficere)와 동일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개체의 능동성 또한 단순히 '변용하기'가 아니다. 높은 수준의 복잡성을 지닌 개체일수록 '변용하기'(affici)의 능력뿐만 아니라 '변용되기'의 능력 또한 요구되기 때문이다. 스피노자는 개체가 이러한 변용하기와 변용되기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지각 능력 또한 더 우월하다고 지적한다. “한 물체가 동시에 여러 방식으로 작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 능력(aptus)에 의해 다른 물체들보다 우월할수록, 그 물체의 정신은 동시에 여러 가지 것들을 지각할 수 있는 그 능력에 의해 다른 정신들보다 우월하다”(E2p13s)²³ 여기에서 스피노자가 정신의 우월성은 “동시에 여러 가지 것들을 지각할 수 있는 능력”에 근거한다고 적시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피노자에 의하면 “다수의 실재를 동시에 바라봄으로써 실재들 사이의 합치, 차이 및 대립을 이해하도록 내적으로 규정”되는 것은 “실재들을 명석·판명하게” 바라보기 위한 필요조건이다.(E2p29cs) 그런데 스피노자는 그러한 능력이 “한 물체가 동시에 여러 방식으로 작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 능력”에 기인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²⁴ 따라서 ‘진정한 자유’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식으로 변용하고 변용되는 능력, “작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 능력(aptus)”이 요구된다는 결론이 따라 나온다.²⁵ 「자연학 소론」의 마지막 요청에서 스피노자가 “외부 물체들을 매우 많은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으며 이것들을 매우 많은 방

23. 이와 관련하여 진태원 2010은 중요한 선행 연구를 제공한다.

24. 스피노자가 '지각'(percipio)과 '개념'(conceptus)을 구분하면서 “지각이라는 명칭은 정신이 대상에 의해 작용을 수동적으로 겪는다고 지시하는 것”(E2d3exp) 같다고 하지만, 다양한 텍스트들에서 지각은 정신의 능동성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TIE 19, E1d4, E3d1) 지각 개념에 대해서는 van Bunge 2011, percipio 항목 참고.

25. 『소론』과 『윤리학』의 능동/수동 개념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수동과 변용됨에 대한 이해 변화라 생각된다. 『소론』은 확실히 예속과 수동을 동일시하는 관점에 가까워 보인다.(KVII, 26. / C.I, 146~150) 자케(Ch. Jaquet)는 『소론』에서 개진된 자유와 예속에 대한 견해가 『윤리학』에서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van Bunge 2011, p. 311)

식으로 배치할 수 있”는 인간의 변용 능력을 제시(E2p13sPost6)하기에 앞서, 변용됨과 관련된 여러 요청들(Post 1~5)을 제시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4. 부분이자 전체로서의 개체

앞 절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스피노자는 하나의 개체를 합성하고 있는 다수의 개체들을 그것들로 합성된 개체의 ‘부분’(partes)이라고 본다.(E2p13sL5) 그렇다면 그러한 물체들로 합성된 물체 또는 개체는 하나의 ‘전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각 부분이 다른 모든 부분과 가능한 만큼 모두가 일치하는 방식으로 서로 조정되어 있는 한에서” 그 부분들은 하나의 ‘전체’로 규정될 수 있다.(Ep32, 이근세 213)²⁶ 따라서 ‘전체로서의 개체’와 ‘부분으로서의 개체’의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스피노자의 재미있는 비유처럼 혈액 속에 어떤 유충이 살고 있어 혈액, 림프, 유미 등의 분자를 식별하고 그 운동을 관찰할 수 있다면, 이 유충은 그것들을 “하나의 부분 아니라 전체로 간주”할 것이다. 그 분자들이 혈액의 부분들로서 “어떻게 [...] 혈액의 보편적 본성에 의하여 조정되는지, 그리고 이 본성에 의하여 일정한 법칙에 따라 서로가 조화되는 방식으로 상호 적응되는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유의할 것은 혈액이 자기 상태에 머무는 동안 이 분자들은 “오직 혈액의 본성에 의해, 즉 림프와 유미들의 운동이 유지하는 일정한 관계에 의해 파악될 수 있는 변화”만을 겪을 것이라는 점이다.(Ep32, 이근세 214) 스피노자는 자연의 모든 물체가 “혈액에 관해 다뤘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부분이자 전체로] 생각될 수 있고 그렇게 생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Ep32, 이근세 214~5) 부분과 전체의 구분이 상대적인 것임을 보여준다. 그에 의하면 궁극적으로는 “자연 전체가 단 하나의 개체”이며(E2p13sL7s) 실존하는 모든 물체는 그 부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Ep32, 이근세 215)²⁷ 인간 또한

26. 인간이 많은 부분들로 합성되어 있다는 자연학적 인식은 스피노자의 인간학과 윤리적 기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테면 『윤리학』 4부 정리60을 보라.

27. 물론 구분의 기초는 항상 그 부분들 사이에 존재하는 일정한 운동과 정지의 비율에 근거해야 한다는

인간을 합성하는 많은 부분들과 관련하여 하나의 전체로 규정될 수 있지만, 다른 모든 실재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질서를 따르는 자연 전체의 일부분”(E4app32)이다. 그런데 우주 전체가 하나의 개체라면, 전체-개체로서의 우주는 그 외부에 아무 것도 없으므로, 외부에 아무것도 없다고 간주되는 한에서의 혈액처럼 “항상 자기 상태에 머물 것”이고 운동과 정지의 관계(ratio)는 불변할 것이다. 반면 우주 전체를 합성하고 있는 부분-개체들인 실존하는 실재 전체(물론 이 실재들 또한 부분-개체들로 합성된 하나의 전체-개체라고 볼 수 있다)는 우주 전체의 본성/역량에 의해 무한하게 많은 방식으로 무한하게 많은 변화를 겪을 수 있다.(Ep32, 이근세 215; E2p13sL7s)²⁸

이상의 논의에서 스피노자가 도출하는 두 가지 논점은 우리의 논의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1)개체는 그것이 부분이 되는 전체가 일정하게 유지될 때(즉 그 전체에 변화를 일으킬 외부 원인이 없을 때) 그 전체를 합성하고 있는 다른 부분들과의 일정한 관계에서 파악될 수 있는 변화만 겪을 것이라는 점이다.(Ep32, 이근세 214) 전체 환경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한다면, 이때 그 전체 환경은 그 안에 있는 개체들의 실존과 인과 연관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그 전체는 그 개체의 실존과 작업을 위한 하나의 ‘상수’(常數)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2)개체가 부분이자 전체로서 이중적 지위를 가지므로 개체의 개체성은 “일정하게 규정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양태들 간의 수평적 인과는 물론 부분과 전체 간의 수직적 인과와 무관할 수 없다.

점에서 자의적으로 구획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고의 II 1. 참고.

28. 스피노자는 “실체의 관계 하에서(ratione substantiae) 각 부분이 그 전체와 매우 밀접한 결합을 이룬다”고 말한다.(Ep32, 이근세 215) 올텐부르크가 스피노자에게 “운동과 정지의 한결같은 비율”이 결국 “질서의 본질적 근거”가 아닌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Ep33, 이근세 219-220), 그는 스피노자가 데카르트처럼 신의 연속 창조 활동에 준거하지 않을지라도 결국 그 자신이 상상적 관념에 속하는 것으로 배제한 ‘질서’를 재도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철저히 거부했던 것과 달리 “자연 안에서의 운동과 정지의 보존이라는 원리가 목적론적 원리”로 남는 것 같다는 것이었다.(E. Balibar, ‘Individuallité, Causalité, Substance: Réflexions sur L’ontologie de Spinoza’, E. Curley & P-F. Moreau(eds.), *Spinoza: issues and directions: the proceedings of the Chicago Spinoza Conference*, Brill, 1990, p. 62 참고) 발리바르에 의하면 이는 스피노자 철학의 아포리아와 관련된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원, 「미완의 스피노자」, 서동욱·진태원 엮음, 『스피노자의 귀환: 현대철학과 함께 돌아온 사유의 혁명가』, 민음사, 2017 참고.

이를테면 혈액 외부에 아무것도 없다고 가정한다면 혈액[전체]은 항상 자기 상태에 머무를 것이고 림프와 유미 등[부분들]도 그들 간의 수평적 관계에 따른 변화만 겪겠지만, 혈액 외부에는 혈액의 운동에 변화를 일으킬 많은 것이 있으므로 혈액의 부분들에는 혈액과의 수직적 관계에 따른 변화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개체는 그것이 속한 전체를 합성하는 다른 물체들과의 인과 연관은 물론 그것이 속한 전체의 인과적 영향 밖에서 사고될 수 없다. 전체-개체의 개체성은 그 부분-개체들이 유지하는 일정한 관계에 다름 아니지만, 부분-개체의 개체성 또한 그 전체-개체의 효과 속에서 실존하고 작업한다.

발리바르가 “변조하면서 동시에 변조되는” 양태들의 인과 도식을 두 차원의 인과로 구분하고, 각각 “일차 수준의 복잡성”과 “이차 수준의 복잡성”이라 부르면서, 이를 고려할 때 개체가 온전히 이해될 수 있다고 했던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일차 수준의 복잡성이 “같은 수준에” 위치한 원인들의 상호 작용 내지는 상호성”에서 발생하는 복잡성이라면, 이차 수준의 복잡성은 개체가 “다른 개체들을 포섭하고, 또 반대로 다른 개체들과 함께 ‘상위의’ 통합 수준들에 포섭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복잡성이다.(Balibar 2005, 220~228) 개체가 부분이면서 전체일 때, 개체의 관계적 성격은 수평적 차원의 인과는 물론 수직적 차원의 인과 또한 고려되어야 온전히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개체의 개체성은 (1)개체를 구성하는 물체들 간의 관계는 물론 (2)같은 수준의 다른 외부 개체 및 (3)그것의 실존과 작업의 배경을 이루는 그것이 속한 더 큰 개체(물론 ‘더 크다’는 표현은 비유적 의미 이상일 수 없다)와의 관계로부터 추상될 수 없다.

III. 스피노자의 자유 문제

상술한 개체론은 인간의 자유 문제 해명에 어떠한 존재론적 근거를 제공하는가? 개체의 관계적 성격을 고려할 때, 결정론과 자유는 근본적으로 상대적인 개념일 수밖에 없다. 개체는 수평적이고 수직적 관계 속에서 타자로부터 독립성을 획득하는 만큼 자유로울 것이고 의존하는 만큼 부자유할 것이기 때문이

다. 이제 구체적으로 상술한 개체론에 입각하여 스피노자의 자유 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1. 내적 규정으로서의 자유

보편적 인과성과 인과적 합리주의 공리를 고려할 때, 스피노자 철학에서 원인이 없는 결과는 있을 수 없다. 나아가 스피노자가 제시한 인과 연관 밖에서 개체의 개체성을 사고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 데카르트가 때로 주장한 “무차별적 자유”(liberty of indifference)로서의 자유 의지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²⁹ 그렇다면 스피노자가 긍정한 자유는 어떤 것인가? 자유 정의는 『윤리학』 1부 정의7에 나타난다.

“자신의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서만 실존하고 자기 자신에 의해서만 행위 하도록 규정되는 실재는 자유롭다고 한다. 그리고 다른 실재에 의해 일정하게 규정된 방식으로 실존하고 작업하도록(operandum) 규정되는 실재는 필연적이라고 또는 오히려 제약되어(coacta) 있다고 한다.”(E1d7)

이 정의에 따르면 자유는 내적 규정에 따른 실존과 행위에 속하고 제약/필연(이하 제약으로 약칭)은 외적 규정에 따른 실존과 작업에 속한다. 내적 규정과 외적 규정은 서로 반대되는 사태이고 각각 자유 및 제약됨과 동일시되므로, 스피노자 철학에서 자유와 제약됨이 반대되는 개념임은 틀림없어 보인다. 유의할 것은 자유의 반대가 원인에 의해 ‘규정’되는 상태로 정의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유로운 실재와 제약된 실재의 차이는 규정됨의 방식의 차이, 즉 규정의 소재가 내부인가 외부인가의 차이일 뿐, 둘 다 원인에 의해 규정됨이라는 조건 밖에 있지 않다. 자유와 필연/제약은 모두 “규정의 인과연쇄에 대해 맺고 있는 일정한 관계의 양상”(진태원 2006, 373)인 것이다. 따라서 위 정의에 의하

29. 데카르트는 자유를 비결정성으로 보기도 하고(PP1, 41, 원석영 36) 결정론과 양립가능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AT VII/57~8, CSM II/40, 이현복 85~86) 이 문제에 대한 간결하고 유용한 정리와 해법에 대해서는 J. G. Cottingham, *A Descartes Dictionary*, Blackwell, 1993, “free will” 항목 참고. 스피노자는 데카르트가 “정신이 자신의 행위들에 대하여 절대적인 역량을 지니고 있”으며(E3praef) “어떤 외부 원인에 의해서 전혀 강제되지 않는 것이 자유롭다”(Ep58, 이근세 332)고 믿었다고 본다.

면 “규정된 자유” 같은 개념은 전혀 형용모순이 아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스피노자의 자유론은 우선 자유와 결정론의 ‘양립가능론’(compatibilism)으로 분류될 수 있다.

신이 자유 원인인 것은 내적으로 ‘규정’되기 때문이지 어떠한 규정도 받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신의 의지(만일 그런 것이 있다면)에도 내부 원인이 있고 따라서 그 원인의 규정을 받는다.(E1p32, E2p48) 다시 말해서 신조차 자신의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 실존하고 행위 하도록 ‘규정’되지, 이와 “아주 다른 종류의 자유, 곧 절대적 의지”, 다시 말해서 무규정적 의지로서의 자유 같은 것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KV I/4, E1p17c2s, E1p33s2, E2p3s 참고)³⁰ 스피노자가 의지는 자유 원인이 아니라 “필연적 원인”이고 “신은 의지의 자유에 따라 작업하지 않는다.”(E1p32, E1p32c1)고 단언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자유는 “자유로운 결단이 아니라 자유로운 필연성 안에” 있다.(Ep58)

스피노자의 자유 규정에 따르면 자유로운 존재는 오직 신뿐이다. 신에게는 외부가 없고 따라서 오직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서만 실존하고 행위하기 때문이다.(E1p17c2)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다른 개체와의 관계를 떠나 존립할 수 없는 유한한 개체는 근본적으로 외적 규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은 1부 정의7의 의미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럼에도 스피노자는 인간이 내적으로 규정될 수 있다고 말하고(E2p29cs) 무엇보다 인간의 자유에 대해 끊임없이 말한다. 우리는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2. 내적 규정의 가능 조건으로서의 외적 규정

2장에서 본 것처럼 우리는 개체의 실존과 작업에 근본적으로 요구되는 외적 규정이 있으며, 따라서 그것을 개체의 실존과 작업의 상수로 이해할 때, 외적 규정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면서 내적 규정의 가능성을 말하는 스피노자의 주장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외적 규정은 이미 내적 규정의 가능 조건으로 전제되는 것이지 내적 규정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시 말해

30. 스피노자는 신에게 이런 자유를 부여하는 것은 “유치할(nugatoriam) 뿐만 아니라 또한 학문(인식, scientia)에 대하여 커다란 장애가 되는 것”(E1p33s2)이라고 역설한다.

서 그것은 자유의 불가능성을 증명하는 내생적 한계라기보다는 오히려 자유가 가능하기 위한 조건이다. “명령에 따른 행위-복종-는 얼마간 자유를 빼앗지만, 그것으로 인해 노예가 되는 것은 아니”(ITP XVI, C I/289, G III/195)라는 스피노자 주장은 근본적으로 이러한 개체의 이해에 근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간 신체는 신체의 행위 역량을 증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아주 많은 방식으로 변용될 수 있으며, 신체의 행위 역량을 증대시키지도 감소시키지도 않는 다른 방식들로도 변용될 수 있다”는 『윤리학』 3부 요청 또는 공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³¹ 외부 사물과의 마주침을 통해 우리의 행위 역량은 증대될 수도 감소될 수도 있다. 그러나 외적 규정이 우리의 실존과 작업의 가능 조건으로 작동한다면, 이 조건 하에서 생성되고 존속하도록 진화해 온 인간은 그것에 의해 신체의 행위 역량이 증대되거나 감소되지 않는 방식으로,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외적 조건을 거의 제약으로 느끼지 못하는 방식으로 변용될 것이다. 물론 의식되지 않더라도 외적 규정에 의해 변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물고기는 물밖에 사는 것이 불가능”(KV II/26)하므로 물의 규정 하에서만 실존하고 작업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물은 물고기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가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한 조건이기도 하다. 물은 물고기가 헤엄치는 속도를 저하시키는 제약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물고기가 헤

31. 기하학적 체계 내에서 그 지위조차 흥미로운 이 “요청 또는 공리”는 이후 행위 역량을 증대시키거나 축진하는 것을 상상하려는 정신의 노력이나 그 자체로는 기쁨의 원인도 슬픔의 원인도 아니지만 우연에 의해 기쁨과 슬픔의 원인이 되는 정신나 실재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다.(E3p12 및 E3p15) 그러나 스피노자가 이 요청/공리에 붙인 설명(“이 요청 또는 공리는 2부 정리13 다음에 나오는 요청1과 보조 정리5 및 7에 의거한다”)을 통해 우리는 이 요청/공리에서 언급된 “신체의 행위 역량을 증대시키지도 감소시키지도 않는 다른 방식들이” 개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의 운동과 정지의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전제로 하는 것임을 간취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의 변용은 『윤리학』 4부 정리29에서 “그 본성이 우리의 본성과 완전히 상이한 여하한 독특한 실재도 우리의 행위 역량을 축진하거나 저해할 수 없으며, 절대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와 아무런 공통점이 없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좋거나 나쁠 수 없다”고 했던 것과 구분되어야 한다. 이 정리는 증명 내용을 고려할 때, 1부 공리4의 ‘인과적 유사성 원리’에 의해 증명된 2부 정리6의 상이한 속성들 간 ‘인과적 독립성 원리’에 의해 해명되어야 한다. 개체의 실존과 작업의 조건이 되는 환경은 우리의 본성과 합치하고 따라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E4p31 참고)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의 본성과의 합치 여부에 따라 우리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판단하기 위한 조건 내지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엄칠 수 있기 위한 조건인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이러한 제약은 개체의 자유를 방해하는 제약이 아니라 자유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이 없다면 **행위 역량의 증대나 감소를 가능할 근본적인 기준 자체가 사라지고 만다.** 이 조건 자체가 행위 역량의 증감이 일어나는 토대 내지 조건인 것이다. 인간이 외부 사물에 의해 이러한 방식으로 변용되고 있을 때, 인간이 산출한 결과는 외부 사물의 본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당연히 인간이 산출한 결과의 **가까운 원인**이라는 단서가 붙는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특정한 외적 규정을 실존 조건으로 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모든 노력 또는 욕망은 그것들의 ⁽¹⁾가까운 원인으로서는 우리의 본성만으로 이해될 수 있게끔, 아니면 ⁽²⁾우리가 다른 개체들 없이 그 자체로 적합하게 인식될 수 없는 자연의 부분인 한에서 이해될 수 있게끔, 우리 본성의 필연성으로부터 따라 나온다.”
(E4app1, 번호 인용자)

이 정리에서 스피노자는 “우리의 모든 노력 또는 욕망이 따라 나오는 방식”을 (1)“가까운 원인으로서는 우리의 본성만으로 이해될 수 있게끔 우리 본성의 필연성으로부터” 따라 나오는 방식과 (2)“우리가 다른 개체들 없이 그 자체로 적합하게 인식될 수 없는 자연의 부분인 한에서 이해될 수 있게끔 우리 본성의 필연성으로부터” 따라 나오는 방식으로 구분한다. 우리의 모든 노력과 욕망은 (2)일 때 ‘가까운 원인’으로서의 우리의 본성과 ‘먼 원인’으로서의 다른 개체들을 통해 이해되지만, (1)일 때 ‘가까운 원인’으로서의 우리 본성만으로 이해된다고 볼 수 있다.³² 요컨대 인간 또한 외적 규정(제약) 상태에 있지만 그것이 인간의 실존과 작업이 가능하기 위한 상수일 때, 그가 산출한 결과의 ‘가까운 원인’이라는 조건 하에서 내적 규정(자유)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32. 가까운 원인과 먼 원인은 후기 스킨라철학의 용어로, a에서 b가 나왔을 때, 곧 둘 사이에 직접적 인과 관계가 존재할 때 a를 b의 ‘가까운 원인’(causa proxima/proximate cause)이라고 하며, a와 c 간에 직접적 인과 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b라는 매개가 존재할 때, a는 c의 ‘먼(떨어져 있는) 원인’(causa remota/remote cause)이라고 한다. A. Heereboord, *Meletemata philosophica*, Editio ultima, Amstelodami, J. Ravesteinuum., 1665, pp. 261~262. 헤이레보르트의 저작은 스피노자의 주요 참고서 중 하나였다. 헤이레보르트에 대해서는 van Bunge 2011, pp. 72~74 참고.

3. 내적 규정과 진정한 자유

그러나 상술한 외적 조건은 내적 규정이 가능하기 위한 필요조건일 뿐이다. 스피노자는 그 이상을 요구한다. 3부 정의1에서 스피노자는 “그 결과가 원인 자신에 의해 명석·판명하게 지각되는” 원인을 ‘적합한 원인’(causa adaequata)이라고 정의하고 “그 결과가 원인 자신만에 의해 이해되지 않는” 원인을 ‘부적합한 또는 부분적인 원인’(causa inadaequata seu partialis)이라고 정의한다.³³ 앞서 언급한 『윤리학』 4부 부록 1의 분류 기준을 빌리자면, (1)인 경우 우리의 본성은 그 결과의 적합한 원인이 되고 (2)인 경우 부적합한 또는 부분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다. 곧이어 등장하는 3부 정의2의 능동(actio)/수동(passio) 정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스피노자에 의하면 우리에게서 산출된 결과가 우리의 본성만으로 인식될 수 있을 때 “우리는 능동이다(활동한다, nos agere)”라고 규정된다. “우리가 수동적이다(활동을 겪는다, nos pati)”라고 말할 수 있는 때는 우리에게서 산출된 결과가 우리 자신을 통해서 부분적으로만 이해될 때이다. 유의할 것은 (2)일 때에도 우리는 우리가 산출한 결과의 원인이라는 점이다.³⁴ 따라서 능동과 수동이 각각 운동의 원인과 운동의 결과에 할당되는 데카르트 철학과 달리(AT XI/328, 김선영 18), 스피노자 철학에서 능동/수동 정의는 원인-결과, 동작주-피동작주, 작용함-작용 받음 구분에 대응되지 않는다. 우리는 부적합한/부분적인 원인이나 수동일 때에도 우리가 산출한 결과의 원인이라고 규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능동과 수동은 특정 시점에 유한한 개체가 지닌 배타적 상태로 규정될 수 없다. 2장에서 본 것처럼 개체의 실존과 인과 역량이 서로를 함축하고

33. 이 정의에서 스피노자의 용어 사용법이 흥미로운데, 왜냐하면 그는 “결과가 원인 자신 만에 의해 이해되지 않는 것을 부적합한 또는 부분적인 원인”이라고 하면서, “결과가 원인 자신에 의해 명석·판명하게 지각되는 것을 적합한 원인”이라고만 할 뿐 ‘진체적인 원인’이라고 말하지는 않기 때문이다.(E3d1) 이는 아마도 개체가 산출하는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개체의 실존과 작업의 조건이 되는 일정한 외적 조건을 배경으로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일 것이다.

34. 다음과 같은 구절도 보라. “따라서 정신의 본성으로부터 따라 나오며, 정신을 자신의 가까운 원인으로 지닌(정신을 통해 이해되어야 하는) 모든 것은 필연적으로 적합한 관념이나 부적합한 관념으로부터 따라 나와야 한다.”(E3p3d) “이에 따라 이성에 의해 정의되는 한에서의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E3d2에 의해) 자신의 가까운 원인으로서는 인간 본성에 의해서만 인식되어야 한다.”(E4p35d).

따라서 개체가 근본적으로 “변조하면서 동시에 변조되는” 구조 인과 속에 놓여 있다면, 그러한 개체는 데카르트적 의미의 능동이나 수동 중 하나의 상태로 규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개체에 데카르트적 능동과 수동 상태를 귀속시키려면, 원인됨과 결과됨은 상호 배제적인 두 상태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2장에서 본 것처럼 개체의 완전한 원인됨이 불가능하듯 개체의 완전한 결과됨 또한 불가능하다. 개체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적합한 원인과 부적합한/부분적인 원인, 능동/수동으로 규정될 수 있지만, 전혀 원인이 아닌 경우는 있을 수 없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개체의 활동이 외적 규정과 무관한 경우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내적 규정의 역량과 무관한 경우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스피노자는 능동과 수동, 적합한 원인과 부적합한 원인, 변용 개념에 모두 원인으로서의 측면이 있음을 일관되게 보여준다.

결과됨과 원인됨의 정도에 따라 우리는 적합한 원인이나 부적합한/부분적인 원인으로, 능동/수동 상태로 규정된다. 따라서 **내적 규정 상태 자체, 원인됨 자체를 곧 적합한 원인이나 능동 상태로 볼 수 없다.** 적합한 원인과 능동 정의에 따르면 그 이상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산출한 결과가 “가까운 원인으로서의 우리의 본성만으로 이해될 수 있게끔 우리 본성의 필연성으로부터” 따라 나와야 한다. (1)외적 제약 없이 하는 행동(이러테면 스스로 팔을 올리거나 내리는 행동), (2)도박이나 마약과 같은 행위자의 욕망에 따른 행동, (3)상당수의 생명체가 외적으로 규정되지 않을 때 보이는 행동이 스피노자가 말하는 자유가 아님은 분명하다. 이러한 것들이 자유의 사례라면, 스피노자가 수동성에서 능동성으로 나아가기 위해 제시한 여러 방법과 그가 말하는 ‘진정한 자유’는 의미를 잃을 것이다. **자유는 내적 규정 상태 자체가 아니다.** 그러나 내적 규정이 가능하지 않다면 진정한 자유는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내적 규정의 가능성은 자유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니다.**

4. 진정한 자유의 가능 조건

아마도 우리가 낮은 수준의 내적 규정을 늘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자

유의 가상'(E5p10s)이 발생하는 원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낮은 수준의 내적 규정과 원인됨은 스피노자가 '최고의 자유'(E2p49cs) 혹은 '진정한 자유'(vera libertas)(E4p73)라고 부르는 자유, 대니얼 데닛의 용어를 전유하여 말하자면 '원할만한 자유'(freedom worth wanting)가 아니다.³⁵ '지성의 역량과 동일시되는 '인간의 자유'(『윤리학』 5부 제목)가 가능한 조건은 어떠한 것인가? 두 가지로 간추려볼 수 있겠다.

첫째, 원할 만한 자유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개체가 높은 수준의 인과 역량 내지 변용되기와 변용하기로 대별되는 다양한 변용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역량은 개체가 지닌 실재성의 다수성과 다양성(높은 수준의 복잡성) 및 부분과 전체의 중층적·중첩적 복잡성에 비례할 것이다. 주지된 바와 같이 여타의 유한한 개체에 견주어 인간은 가장 높은 수준의 복잡성을 지니고 있고 실현될 수 있는 자유의 영역 또한 그만큼 크다.

높은 수준의 변용 능력이 스피노자가 말하는 '진정한 자유' 또는 '원할 만한 자유'의 필요조건임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스피노자가 말하는 자유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가장 높은 수준의 복잡성과 변용 능력을 갖도록 진화했고, 그만큼 진정한 자유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높은 수준의 '예속'(servitudo)에 이를 수도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³⁶ "구원을 위해 싸우듯 노예됨을 위해 싸우

35. D. Dennett, *Elbow Room: The Varieties of Free Will Worth Wanting*, Oxford Univ. Press, 1985. 스피노자의 자유는 단순한 자기규정 상태가 아니라 그것이 자기 보존에 진정한 유익이 될 것을 요구하고 (E4p20),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의 질서와 연관에 대한 '적합한 인식'이 필요하다.(E4p24) 우리는 스피노자 철학에서 자유의 가능성을 개체론과 관련하여 논구하고 있고, 따라서 스피노자가 말하는 자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이는 자유와 동일시되는 구원, 지복이 무엇인지 하는 문제와 다른 것이 아니다) 어떠한 방법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지는 본고의 범위 밖이다. 관련 문제는 홍영미, 「스피노자철학에서의 정서와 자유의 문제」, 『철학』 제89집, 2006; 이근세, 「스피노자의 철학에 있어서 정념과 자유의 문제」, 『철학논집』 제25집, 2011; 박기순, 「스피노자의 유덕자, 자유인-자유와 합리성의 계보학적 재구성」, 『인문논총』 69집, 2013; S. Nadler, "On Spinoza's 'Free Man'", *Journal of the American Philosophical Association* 1(1), 2015; 진태원, 2018 등의 선행 연구를 제시하는 것으로 같다.

36. 스피노자의 철학에서 자유의 반대 개념을 굳이 찾자면 '예속'일 것이다. 『윤리학』 4부 서문 내용을 고려할 때 예속은 "우연의 권리/힘 아래 있는 무능력 상태"라고 정의될 수 있다.(E4pref) '규정됨'은 자유의 반대 개념이 아니므로 예속과 규정에 대한 스피노자의 평가는 전혀 다르다. 자연 법칙, 내외부의

고 그것을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가장 영예로운 성취라 생각”하는 게 인간이기도 하다.(C II, 68~9, G III, 7) 자발적 예속을 추구하는 대중들의 비합리성과 “신법의 명령”을 구속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탐욕(libidini)을 쫓도록 허락받는 한에서 자유롭다고 믿으며”(E5p41s) 사는 것 또한 이러한 인간의 복잡성과 다양한 변용 능력에 기인하는 것이다.³⁷ 『신학정치론』에서 스피노자는 이들이 실상 “노예”(servus)라고 주장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구속된 사람으로, 그 명령은 단지 명령을 한 사람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TTP XVI, C I/289, G III/195)³⁸ 스피노자에 의하면 이 또한 “자연의 최고 권리”(summo naturae jure)에 기인하는 것이다. 예속 상태의 인간도 “자신의 본성의 필연성에서 따라 나오는 것을 수행한다.”(E4p37s2) 따라서 높은 수준의 변용 능력 또한 내적 규정의 역량이나 원인됨의 역량과 마찬가지로 ‘진정한 자유’가 가능하기 위한 필요조건일 뿐, 그 자체가 ‘진정한 자유’는 아니다.

원할만한 자유가 가능하기 위한 두 번째 토대로 개체가 속한 전체의 본성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2장에서 언급된 “혈액 속에 사는 유충”처럼 개체가 하나의 전체이자 어떤 전체를 합성하는 부분이고 수평적·수직적 복

원인 및 조건, 이러한 것들에 의한 결정론적 연쇄는 실재가 ‘규정’되고 있음을 의미할 뿐 ‘예속’되어 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 하에서도 우리는 “자신의 권리 아래”(sui juris) 있을 수 있다.(E4app7) “우리는 진짜 예속과 인간이 예속이라고 상상하는 것을 구별해야 한다.”(van Bunge 2011, p. 311) 스피노자가 이러한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sui juris”라는 어구의 사용과 관련된 문제 및 그 해법에 대해서는 J. D. Steinberg, “Spinoza on being sui iuris and the republican conception of liberty,” *History of European Ideas* 34(3), 2008 참고.

37. 인간의 본성이 그어져 있는 인과적 힘들의 역사는 좋은 것은 더 좋게 나쁜 것은 더 나쁘게 만든다. 스피노자는 그 힘들이 ‘양의 되먹임’ 방식으로 개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날카로운 통찰을 보여주는 바, 그 메커니즘의 토대는 『윤리학』 2부에서 자연학적인 방식으로 설명된다.(E2p13sA1~A3, E2p13sPost5, E2p17cd) 이 양의 되먹임은 역량을 강화하는 좋은 방식으로 작동하기도 하지만(E3p34d, E5p40), 역량을 저하하는 나쁜 방식으로 작동하기도 한다.(E4p20) ‘양의 되먹임’(positive feedback)과 ‘음의 되먹임’(negative feedback)에 대해서는 윤영수·채승병, 『복잡계 개론』, 삼성경제연구소, 2005, 59~60 쪽; “부록 B_복잡계 관련 용어,” 최무영, 『최무영 교수의 물리학 강의』(전면 개정판), 책갈피, 2019, 663~665쪽 참고.

38. 따라서 자유나 예속 상태로 분화될 수 있는, 내적 규정이 가능한 어떤 존재론적 상태가 있다고 해야 할 터인데, 그것의 정치철학적 번역이 ‘자연 상태’(status naturalis)일 것이다.(TTP XVI, C I/292~2, G III/198, E4p37s2)

잡성의 인과적 그물망 속에서 형성·유지·변화되는 것이라면, 개체의 자유는 그것이 속한 전체 및 그 부분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기 때문이다. 이 유충은 자신을 하나의 개체로 인식하고 개체성을 유지하며 자기규정의 중심으로 살아가겠지만, 사실 그것이 속한 전체(혈액)에 의해 규정되고 있으며 그 전체에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실재의 영향 또한 받는다. 두말할 나위 없이 이 유충의 사정은 인간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인간의 본성과 욕망은 그가 속한 생명체와 사회, 경제, 정치 체제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인간이 속한 '체계(system)가 무엇을 지향하고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는 인간 본성, 즉 욕망과 무관할 수 없다. 스피노자는 이미 『윤리학』 2부 정의에서 독특한 실재를 “하나의 작용에 협력하여 [...] 모두가 함께 하나의 결과에 대한 원인”이 되는 다수의 개체들의 총체로 정의(E2d7)하면서, 자연적 개체를 넘어 인간이 자연상태에서 벗어나 형성한 집단(이를테면 국가나 종교 등) 또한 개체로 볼 수 있는 길을 연다. 우리가 욕망하고 행하는 것의 가까운 원인이 우리가 속한 체계와의 인과 관계 속에서 축적된 우리의 본성이라면, 먼 원인 중 하나는 우리가 속한 다양한 체계들 자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³⁹

우리가 속한 체계는 우리의 자유를 촉진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를테면 구성원들이 존재 보존에 진정으로 좋은 것을 욕망하고 더 자유롭도록 돕는 국가가 있을 수 있다. “시민들을 노예들인 것처럼 통치하거나 인도할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가장 훌륭한 것을 행하도록 통치하거나 인도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학설이라고 스스로 주장한 스피노자의 철학도 그런 것일 수 있다. (E2p49cs) 반면 우리가 속한 체계는 우리의 자유를 제약하고 왜곡하며 우리를 자신의 이익이 아닌 주인의 이익에 구속되도록 만들 수도 있다.⁴⁰ 스피노자

39. 물론 체계의 성격은 부분과 무관하지 않다. 부분과 전체는 상호 공속적이고 상호 효과 속에서 사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L. Althusser & É. Balibar, *Reading Capital*, Ben Brewster (trans.), Verso, 2009, 206~209쪽 참고.

40. 『신학정치론』 16장에서 스피노자는 명령에 복종하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을 각각 ‘노예’, ‘아들’, ‘신민’(subdius)이라는 이름을 붙여 구별한다. 노예는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구속된 사람”으로 그 명령은 실상 “명령한 사람의 이익과만 관계가 있을 뿐이다.” “아들은 부모의 명령에 따라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하는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신민은 최고 권력의 명령에 따라 공동의(communi) 것에 이익이 되는, 그러므로 그 자신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을 하는 사람이다.”(TTP XVI, C1/289, G III/195)

의 개체론에서 우리는 자유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행복론 차원의 문제가 아닌 근거를 발견한다. 그의 개체론이 보여준 부분과 전체의 공속성으로 자유는 국가와 정치, 문화, 사회 등 체계 전체의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가 된다. 생성을 위해서나 존재를 위해서나 인간은 이 조건을 벗어날 수 없고 자유든 예측이든 이 조건 밖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 이는 한계가 아니라 이웃하여 나아가야 할 조건일 뿐이며 이 조건 자체의 변혁을 추구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IV. 결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스피노자는 자유를 내적 규정 상태로 정의하고 제약은 외적 규정 상태로 정의함으로써 원인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 자유를 가상에 불과한 것으로 만든다. 원인이 없는 절대적 자유, 즉 '시작의 자유'(freedom of origination)는 존재하지 않는다. 외적 규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유한한 개체는 물론 내적으로 규정되는 신 또한 규정의 부재로서의 자유를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규정의 부재를 뜻하는 '소극적 자유'(negative freedom)는 스피노자가 말하는 자유가 아니다. 내외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할 수 있는'(could have done otherwise) 자유, 즉 '무차별적 자유'(liberty of indifference)를 함축하는 '자유 의지'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한 자유에 대한 믿음은 "눈을 뜬 채 꿈꾸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E3p2s) 따라서 스피노자 철학에서 자유는 규정의 부재나 규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자유는 내적 규정으로 정의되는 바, 유한한 개체인 인간의 자유는 우리의 실존과 작업이 가능하기 위한 상수로서의 외적 규정을 근본 조건으로 하고, 우리 신체를 보존하고 능동성을 촉진하는 외부 사물이나 체계와 무관할 수 없다. 순수한 내적 규정 상태를 상정해 보더라도 그 상태 역시 변조되고 변조하는 부분들의 인과 연관망에 다름 아니므로, 내적 규정으로서의 자유는 소극적 자유나 자유 의지일 수 없다. 외적 제약 없이 내적 동기나 욕망에 따라 행위할 수 있음을 뜻하는 '자발적 자유'(liberty of spontaneity) 역시 원할만한 자유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 조건은 아니다.

혹자는 순수한 내적 규정 상태조차 여전히 결정론의 지배를 받는 것 아닌지, 내적 규정 과정 또한 복잡한 인과 연관망 속에서 보편적 인과성에 따라 진행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것 아닌지, 이의를 제기할지도 모르겠다. 결정론이 자유 문제와 견합(牽合)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적 규정은 어떻게 자유일 수 있는가? 그러나 이러한 문제 제기는 인간과 인간을 합성하고 있는 부분들 및 그것들 간에 유지되고 있는 법칙을 별개의 것이라고 볼 때 가능한 반론이다. 법칙을 실재 바깥에서 실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실재들을 통해 구현되고 있는 “결정의 형식 내지 패턴”으로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실재의 바로 그 본질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E2d2 참고) 인간과 인간을 합성하고 있는 부분들 및 그 부분들 간에 성립하는 법칙 또한 마찬가지이다.⁴¹ 그렇다면 자유는 법칙에서 벗어난 비결정성, 임의성, 무법칙성 같은 것을 함축하는 것일 수 없다. 오히려 자유는 보편적 결정론 하에서 이루어지는 “법칙적인 자기결정”(lawful self-determination)의 형식을 띠는 것이다. 자유의 결여는 법칙의 지배를 받는 상황 자체가 아니라 내외부의 규정이 진정한 자기 보존이 가능한 법칙적 자기결정을 방해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⁴² 자유의 획득에 우리 자신과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외부 실재들을 지배하는 법칙을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⁴³ 자유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가 속의 국가”(imperium in imperio)가 아님을 자각해야 한다.(E3proof) 다시 말해서 자연 세계처럼 우리의 신체와 정신 모두 근본적으로 동일한 자연법칙에 의해 내외적 규정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유롭다고 느끼는지⁴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원인에

41. 스피노자 철학에서 신과 속성 및 무한 양태의 지위 그리고 그것들과 유한 양태들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법칙은 자연을 초월하면서 자연을 지배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스피노자 철학에서 자연 법칙 문제에 대해서는 Y. Yovel, “The Infinite Mode and Natural Laws in Spinoza,” Y. Yovel(ed.), *God and nature: Spinoza’s metaphysics: papers presented at the first Jerusalem conference* (Ethica I), Brill, 1991, pp. 79~96 참고.

42. 이상 M. Bunge, *Causality and Modern Science*, Transaction Publishers, 2009, pp. 181~197 참고.

43. 스피노자는 인간을 지배하는 법칙이 우리의 외부 세계를 지배하는 법칙과 다른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인간은 ‘국가 속의 국가’(imperium in imperio)가 아니다.(E1p15s)

44. 최근 이를 주제로 한 논문 몇 편이 출판되었다. G. Barry, “Spinoza and the Feeling of Freedom,”

의해 규정된다는, 우리의 실존 조건에 대한 몰인식은 오히려 자유에 대한 가상과 예속 상태를 공고하게 만든다. 자유 의지를 지닌 정신이 신체나 욕망과 정서를 지배한다는(E3p2s, E5proef) 가상에 빠져 있을 때, 자유는 더 요원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다. 의지는 원인이 없는 자유 원인이 아니라 '필연적인 원인'이다.(E1p32) 스피노자 철학에서는 신조차 “의지의 자유에 따라 작업하지 않는다.”(E1p32c1)

참고문헌

- Spinoza, Benedictus de., *Spinoza Opera*, 5 vols., Carl Gebhardt (ed.), Heidelberg: Carl Winters Verlag, 1972[1925].
- _____, *The Collected Works of Spinoza*, 2 vols., Edwin Curley (ed. & tra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2016.
- _____, 『스피노자 서간집』, 이근세 옮김, 아카넷, 2018.
- _____, 『윤리학』, 진태원 옮김, 근간예정.
- Lucretius,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 강대진 옮김, 아카넷, 2012.
- Descartes, Rene., 『철학의 원리』, 원석영 옮김, 아카넷, 2002.
- _____, 『정념론』, 김선영 옮김, 문예출판사, 2013.
- 김은주, 「외적 충격으로부터 어떻게 내면이 구축되는가?-데카르트의 물체 충돌 규칙과 스피노자의 변용(affectio) 개념」, 『철학사상』 제49권,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13, 53~83쪽.
- 박기순, 「스피노자의 유덕자, 자유인-자유와 합리성의 계보학적 재구성」, 『인문논총』 69집, 2013, 79~113쪽.
- 박기순,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개념과 목적론」, 『철학사상』 57집, 2015, 85~115쪽.
- 윤선구, 「스피노자와 라이프니츠에 있어 가능성 개념과 자유」, 『철학』 제78집, 2004, 103~137쪽.
- 윤영수·채승병, 『복잡계 개론』, 삼성경제연구소, 2005.
- 이근세, 「스피노자의 철학에 있어서 정념과 자유의 문제」, 『철학논집』 제25집, 2011, 31~62쪽.
- 조현진, 「우연성의 뿌리-스피노자의 양상개념을 둘러싼 쟁점들에 대한 고찰」, 『근대철학』 6호, 2011, 71~98쪽.
- 진태원, 「변용과 연관의 인과론-스피노자 인과이론에 대한 한 가지 해석」, 『헤겔연구』 27호, 2010, 215~239쪽.
- _____, 「스피노자의 윤리학: 욕망의 힘, 이성의 역량」, 『동서인문』 9호, 2018, 31~63쪽.

- _____, 『스피노자 철학에 대한 관계론적 해석』, 서울대 대학원 박사논문, 2005.
- 최무영, 『최무영 교수의 물리학 강의』(전면 개정판), 책갈피, 2019.
- 최원, 「미완의 스피노자」, 서동욱·진태원 엮음, 『스피노자의 귀환: 현대철학과 함께 돌아온 사유의 혁명가』, 민음사, 2017.
- 홍영미, 「스피노자철학에서의 정서와 자유의 문제」, 『철학』 제89집, 2006, 51~79쪽.
- Althusser, Louis & Balibar, Étienne, *Reading Capital*, Ben Brewster(trans.), Verso, 2009.
- Balibar, Etienne, "Individualité, Causalité, Substance: Réflexions sur L'ontologie de Spinoza," Edwin Curley & Pierre-Francois Moreau(eds.), *Spinoza: issues and directions: the proceedings of the Chicago Spinoza Conference*, Brill, 1990, pp. 58~76.
- _____, "Spinoza: from Individuality to Transindividuality," *Mededelingen vanwege Het Spinozahuis*, 71, Eburon, 1997.
- _____, 『스피노자와 정치』, 진태원 옮김, 이제이북스, 2005.
- Barry, Galen, "Spinoza and the Feeling of Freedom," *Australasian Journal of Philosophy* 94(4), 2016, pp. 631~664.
- Bennett, Jonathan, *A Study of Spinoza's Ethics*, Hackett, 1984.
- Bunge, Mario, *Causality and Modern Science*,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2009.
- Bunge, Wiep van, Krop, Henri, Steenbakkens, Piet & Ven, Jeroen van de, *Continuum Companion to Spinoza*, Continuum, 2011.
- Cottingham, John G, *A Descartes Dictionary*, Blackwell, 1993.
- Curley, Edwin & Walski, Gregory, "Spinoza's Necessitarianism Reconsidered," R. J. Gennaro & C. Huenemann(eds.), *New Essays on the Rationalists*,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pp. 241~262.
- Curley, Edwin, *Spinoza's Metaphysics: An Essay in Interpreta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69.
- Dennett, Daniel C., *Elbow Room: The Varieties of Free Will Worth Wanting*, Oxford University Press, 1985.
- Garrett, Don, "Spinoza's Necessitarianism," Yirmiyahu Yovel(ed.), *God and Nature Spinoza's Metaphysics: papers presented at the first Jerusalem conference (Ethica I)*, Brill, 1991, pp. 191~218.
- Heereboord, Adrianus, *Meletemata philosophica*, Editio ultima, Amstelodami, J. Ravesteinium, 1665.
- Huenemann, Charlie (ed.), *Interpreting Spinoza: Critical Essay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 Huenemann, Charlie, "But Why Was Spinoza a Necessitarian?," Michael Della Rocca (ed),

- The Oxford handbook of Spinoza*,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pp. 114~132.
- Koistinen, Olli, *On the Metaphysics of Spinoza's Ethics*, University of Turki, 1991.
- Mason, Richard, "Erratum—Spinoza on Modality," *The Philosophical Quarterly* 36(144), 1986, pp. 313~342.
- Macherey, Pierre, *Avec Spinoza: Etudes sur la doctrine et l'histoire du spinozisme*,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92.
- Melamed, Y, "The Causes of Our Belief in Free Will—Spinoza on Necessary, 'Innate,' yet False Cognition," Yitzhak Y. Melamed(ed.), *Spinoza's Ethics: A Critical Guid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pp. 121~141.
- Nadler, Steven, 『에티카를 읽는다』, 이혁주 옮김, 그린비, 2013.
- _____, "On Spinoza's 'Free Man,'" *Journal of the American Philosophical Association* 1(1), 2015, pp. 103~120.
- Newlands, Samuel, *Reconceiving Spinoza*,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 O'Connor, Timothy, "Free Will,"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Stanford University Press, Tue Aug 21, 2018.
- Sleight, Robert Jr., Chapelle, Vere & Della Rocca, Michael, "Determinism and Human Freedom," Daniel Garber & Michael Ayers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Seventeenth Century Philosophy*, vol. II.,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195~1278.
- Steinberg, Justin D., "Spinoza on being sui iuris and the republican conception of liberty," *History of European Ideas* 34(3), 2008, pp. 239~249.
- Viljanen, Valtteri, *Spinoza's Geometry of Pow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 Yovel, Yirmiyahu, "The Infinite Mode and Natural Laws in Spinoza," Y. Yovel(ed.), *God and nature: Spinoza's metaphysics: papers presented at the first Jerusalem conference (Ethica I)*, Brill, 1991, pp. 79~96.

Abstract

Spinoza's theory of individual and the problem of freedom

Lee, Hyouk ju (Inha University, Guest Professor)

Spinoza defined freedom as a state of internal determination and constraint as a state of external determination. In this sense, only God has freedom, and all finite beings, including humans, are cognized to lack freedom because they cannot escape external determination. According to Spinoza, however, humans can be internally determined and can achieve freedom even though difficult and rare. This paper postulates that Spinoza's view of the freedom of finite individuals can consistently be explained through his theory of individuals. Spinoza repudiated the freedom of finite individuals because human beings are fundamentally relational and cannot escape external determination. Conversely, the probable reason that Spinoza could recognize the possibility of human freedom was that he noted that external determination, which is a fundamental condition of existence and work of finite individuals, could be understood as a constant that may enable, rather than interfere with, the internal determination of finite individuals. However, we believed that the internal determination itself of finite individuals is just a necessary condition for freedom; it is not 'true freedom.'

Keyword: Spinoza, Freedom, Constraint, Determination, Determinism, Individual, Relation

논문 투고일 : 2020년 3월 11일
심사 완료일 : 2020년 4월 16일
게재 확정일 : 2020년 4월 22일